

답사기 02-03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JIA 큐슈지부가고시마회 한일교류를 다녀와서

전북 지역 뉴스 04-05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총 46개 작품 수상작 선정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오는 11월 18일(화)부터 개막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 '2025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 '2025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 동시 수상 쾌거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건축사회, '2025 건설안전·품질 세르파' 교육 실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북구청 갤러리서 '제27회 미술전' 성료
'제8회 도시주택포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전남 지역 뉴스 08-09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5개소 선정
전남 광양시, 2025년 건축·토목 설계사 간담회 개최
화순군, 지역 건축사 및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건축학부 학생 인터뷰 10

속도의 도시에서 문화의 도시로, 영암을 다시달리게 하다

독자광장 11

창간 16주년 기념 회호
책 소개 _ 공간을 감각하는 재료들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12-14

2025년 대상(공공 부문)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2025년 우수상(공공 부문) '한국창의예술중학교'
2025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RC기숙사 & 식당'
2025년 우수상(민간 부문) '담빛리주택'

건 축 문 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11월호(192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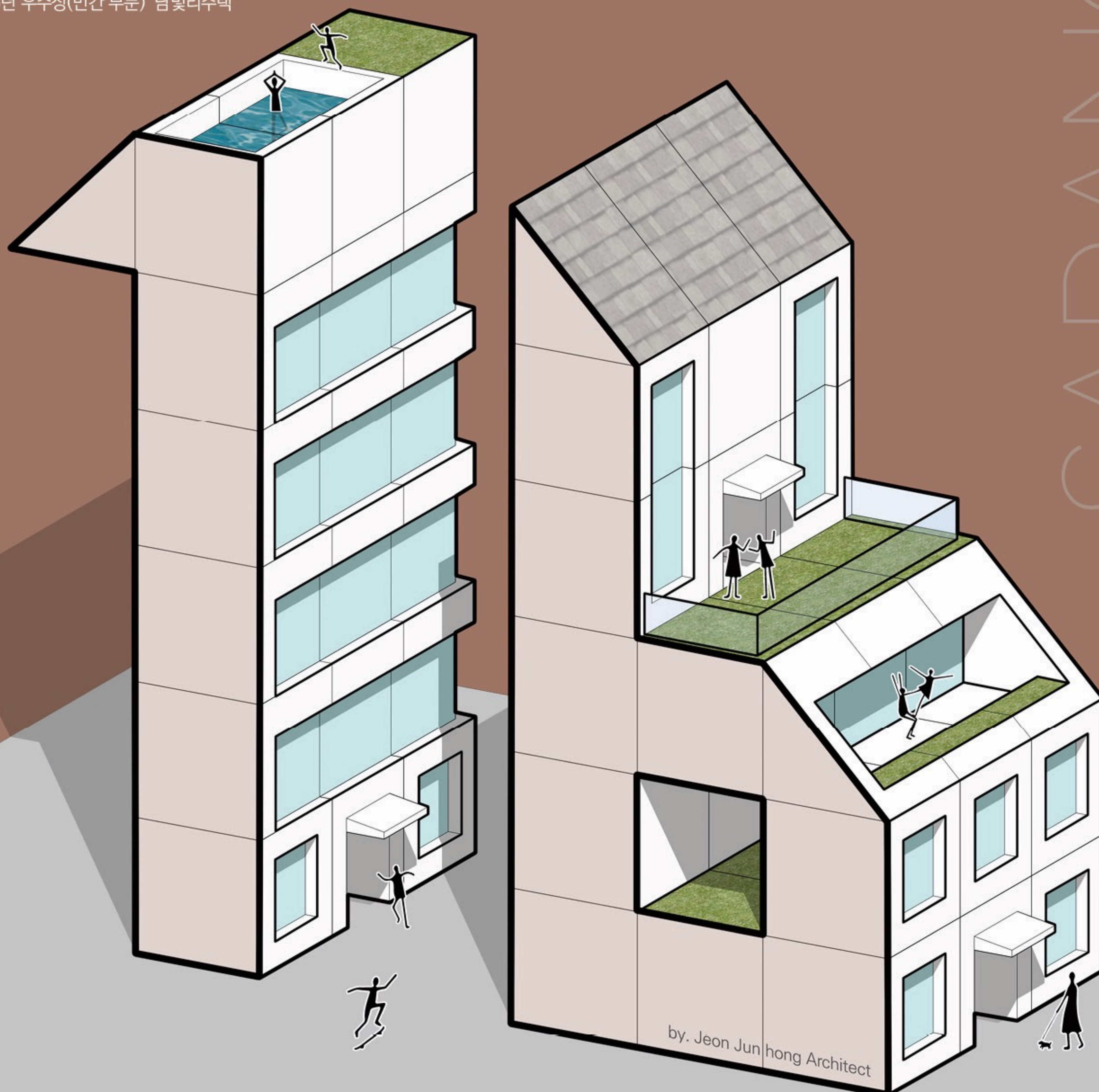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SARANG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JIA 큐슈지부가고시마회 한일교류를 다녀와서



육광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채담)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일본건축가협회 큐슈지부가고시마회의 교류는 건축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 문화와 기술을 교류하고, 상호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이념을 넓히길 도모하기 위해 2012년 10월 19일 협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협정 이후 교류전은 2년마다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2020년 코로나팬데믹 이후 교류를 멈추었다. 2024년 가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초청으로 가고시마회에서 전주와 서울을 방문하였고 지극한 환영에 대한 답방 요청으로 이성열 회장(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를 필두로 본인을 포함 총 5인이 10월 13일~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일교류전을 다녀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고시마현과 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큰 노력 중이며 매년 건축문화제에 건축작품전을 교류하고 있다.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 가고시마회에 준비된 답사를 포함한 2일간의 일정과 처음 참여하였던 교류전의 감회와 소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5년 10월 13일(월)

아침 일찍 이른 시간 호텔 앞 가고시마회 회원들의 지극한 환대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5인은 각각 둘과 셋으로 나뉘어 차량 두 대에 나눠타고 이부스키시로 이동하였다.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인 미즈모토상(가고시마지회 소속)과 번역기를 돌려가며 어색했던 소통의 대화는 웃음으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였고 1시간 남짓 달려 남측의 이부스키시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맞이한 건물은 지역 건축가이자 일본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축가라고 불리는 TAKASAKI MASA HARU가 설계한 나노하 나칸 놀이공원(Nanohankan Fureai Plaza)이었다.



정면 출입구 앞에서

마당

체육관

전승관 내부

TAKASAKI MASA HARU의 대표작
Kihoku Astronomical Museum

그의 건축은 우주, 인간의 탄생 등 우주론적 개념의 특징을 안테나 센서, 달걀 모양의 돔, 확산된 빛으로 드러내는 모노비토정신(사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사상 : 건축은 주변과 교감하는 태도이자 인류와 우주를 연결하는 하나의 존재이다)을 담은 건축으로서 형태적으로 매우 독특하였는데 달걀 모양의 실내 풍경은 마치 우주를 바라보는 눈동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하였으며 교신자로서 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매끈한 노출콘크리트면, 체육관의 떠 있는 거대한 지붕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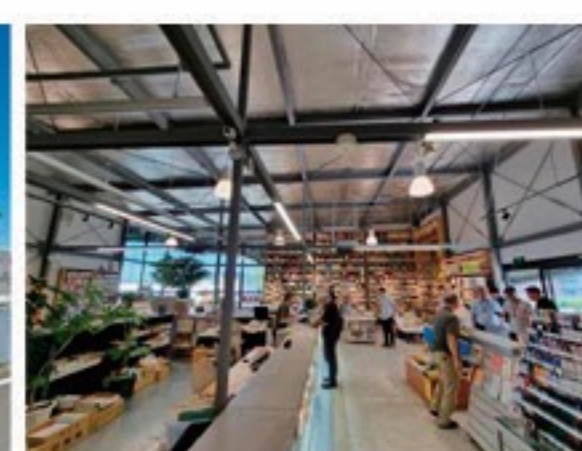
다음으로 견학하게 된 건축물은 가고시마지회 소속인 미야자키 상이 설계한 요네나가 서점이었다.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의 주인은 설계자의 친구로서 설계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우리를 친절함으로 맞아주었다.

알루미늄의 단순한 외관, 길모퉁이에서 만나는 부분의 삼각형의 진입 계단은 사

선의 입면으로 변화되고 진입을 이루게 했다. 사선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내부는 지름 12.5cm의 기둥들이 5m 간격으로 지붕의 철골 부재를 떠 받히고 그 덕분에 부재는 매우 경량화될 수 있었으며 공사비 또한 30%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요네나가 서점 외관



요네나가 서점 내부

노출된 가새들은 자연스레 드러나 내부에도 자연스레 드러나며 내진에도 안전하게 보였다. 막상 건물 내부에 작은 기둥이 세워진다는 게 불편해 보일 거라 생각되었지만 영역들을 나누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매우 소박하면서도 지붕을 숨기는 디테일, 흙통의 처리 등 많은 간결한 디테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다음은 차로 20분 정도 달려 만난 건물은 이와사키 호텔 부지안에 위치한 이와사키 미술관이었



이와사키 미술관 전경



연결통로 계단



다. 지난해 작고한 Fumihiko Maki가 1983년에 설계한 건물로 일본 근대 서양화의 선구자이자 가고시마현의 출생자인 Kuroda Seiki와 그의 제자 Fujishima Takeji의 작품들이 소장된 미술관이다.

한층 정도의 경사진 대지에 레벨을 오르는 계단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에 여러 크기와 높이를 가진 다양한 콘크리트 상자로 이뤄진 미술관은 천창을 통해 빛을 조절하고 소장품을 잘 드러내고 보존하고 있었다.

단계적으로 증축된 건물은 지하 통로를 통해 연결되고 그 지점에 다른 공간으로 전이를 이끄는 계단의 디테일은 독특하였다.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흰색 페인트 도장으로 변경되어 아쉬웠지만 공간을 담는 풍부한 높이와 변화, 천창을 통해 산란하는 빛의 느낌은 매우 좋았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상자는 작품소장의 최적 공간을 구현하고 철골조 복합의 구조는 투명성과 아치형의 내부를 매우 잘 구현하고 있었다. 슬라브를 떠받치고 있는 철골 기둥은 구조적인 역할과 형태를 드러내며 넓은 콘크리트 면을 흠파기를 통한 분절함을 통해 면을 나누는 모습은 세심해 보였으며, 노출면의 매끈함 등은 따뜻하기까지 했다.

1시간을 달려 미나미큐슈치란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치란 전통적건축물군 보존지구를 견학하였다. 옛 일본 사무라이 가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일본식 전통가옥과 도로계획,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와 아기자기한 멋을 느끼며 돌아볼 수 있었다.



사무라이 전통가옥



정원



건물 내부

주변 산의 정상을 기점으로 도로를 만들고 직각으로 배치된 마을은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자연발생적인 지형에 순응하는 대신 반듯하며 인공적인 느낌이 도시 계획적으로 매우 정리된 듯한 모습이었다. 출입구로부터 건물까지는 나무생울타리 담장으로 돌아가게 하며 그렇게 만나는 내부마당의 산수풍경은 집 내부로 끌어들여 조경으로 산을 겹쳐 만들어 외부로 그 풍경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정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다다미가 깔린 내부는 칸막이를 걷어내어 하나로 통합되었고 마루와 외부마당로 확장되었다. 마루와 본체 사이의 외부로부



덧문

터 보호를 위해 달린 덧문은 본래 기능과 더불어 빛을 차단하고 켜를 만드는 것으로 한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인 미와 실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을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치란 전통적건축물 보존지구를 구경 후, 차로 1시간 달려 현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토루 아지사카 회장의 사무실이자 주거공간이 있는 곳인 미나미사츠마시 카세다후모토 전통적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이동하였다. 3대에 걸쳐 살아온 건물을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토루 아지사카 회장은 전통은 보존을 넘어 현대에도 유효한 가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 구법은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우리는 과연 전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통은 원형을 지키기보다, 그 안의 공간 정신과 기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것이 진정한 보존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2025년 10월 14일(화)

아침 7시 호텔을 출발하여 호텔 근처 수산시장에 도착하였다. 가고시마회원들이 준비해준 회정식과 매운탕으로 전날의 웰컴 파티로 인한 쓰리고 허기진 속을 채우고 인근에 현대화된 수산시장을 구경한 후 가고시마현청으로 이동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자매결연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고시마현청토목부 건축기술감독관인 카미무라 야스타카상과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은 교류 확대를 기대하며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였고 이어 가고시마 시청으로 이동, 건설국 건설부장으로부터 가고시마 시내 최대 변화가인 텐몬칸의 도시재생 사례의 설명을 들었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공동개발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적극적 해결하여 상업시설 내 공공의 도서관 설치, 1층에는 관광안내소를 포함한 넓은 공개공지를 설치한 센테레스텐몬칸(머물렀던 호텔 인근에 위치)은 도시 중심 공간으로 역할은 매우 컸다.

가고시마 시청을 나와 Ando Tadao가 설계한 이나모리회관이 있는 가고시마대학으로 이동하였다. 학교에 들어 인상 깊었던 것은 내진 보강된 건축물들의 모습이었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신입생들의 모습과 더불어 열기로 가득 찬 교실 내 풍경이었다. 공학부 건축학과를 둘러보고 교세라 회장인 이나모리기념관에서 교수님들과 식사 후 이나모리회관으로 이동 국제교류 회의를 진행하였다.



1시간가량의 국제교류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작년과 올해의 방문 성과와 감사를 이야기하고 2027년 있을 한국으로 방문 시 요청사항들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였고 이 행사가 지속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나모리회관은 안도 특유의 콘

크리트 텍스처, 조형적 볼륨, 내부 경사로들을 통한 공간 순환체계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알을 닮은 돔 형태의 공간은 복도와 강연장이 되고 강연장 내부 구 안에 달긴 작은 빛으로 가득 담긴 내부공간은 마치 우주 속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키게 하였다.

교류전을 다녀와서...

가고시마는 3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큐슈지방의 남단의 도시로 전주라는 도시와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60만의 인구의 규모도 그렇고 우리로 말하면 한옥마을인 전통적건축물군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전통건축에 대한 보존을 넘어 발전에 관한 생각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가보는 가고시마 교류전에 가기 전 어떠한 건축물들이 있을까 조사를 하였지만, 현대건축으로 핫한 도시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있는 도시, 하지만 나름의 지역성을 고민하고 어떻게 발전시켜나갈까 하는 고민하는 도시, 내가 사는 전주라는 도시와도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첫날의 어색함도 쉽게 사라질 수 있었다.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가며 동행하였던 가고시마지회 소속 건축사들과 소통하며 일본의 건축사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나가는지, 설계비는 얼마나 받는지, 아울러 건축에 대한 일반인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공공업무 대가 기준의 설계비를 일반건축물 설계에서도 받고 있었고, 적어도 그들에게선 생계형 건축사로서 일해야 하는 조바심은 느낄 수는 없었다. 교류전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건 충분한 자부심을 느끼고 건축에 대한 열망을 느끼며 작업하고 있음이었다. 그러한 사실과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높아 보여,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가고시마대학의 막 입학한 학생들의 모습, SANNA의 테시마뮤지엄을 모델 작업하는 것으로 첫 학기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서 보였던 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들은 30년 전 처음 입학하였던 학교의 그때를 생각하게 했다. 지금도 그때의 열정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되물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건물의 간판들은 매우 정갈하게 정리되어있고 마감자재는 오염이 적은 타인지 건물들은 노후화되어있긴 하더라도 깨끗함을 잘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와사키 미술관, 이나모리회관, 가고시마대학의 이나모리기념관 등의 건축물의 마감과 디테일에 대한 많은 고민의 흔적들은 돌아오는 내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번 건축문화위원장의 직함을 달고 다녀온 교류전은 일본건축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고 내 건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함을 담아낼 수 있으리란 기대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했던 선배 건축사님들과 소통이었으며 가고시마지회 회원들의 지극한 환대였으며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하나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은 통하지는 않지만, 사람과 건축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끝으로 마지막 날 리셉션 말미에 두 분의 회장님 건배사보다 길게 흥에 겨워 두서없이 취기 어린 많은 말을 내어놓았던 막내였던 저의 건배사에 대한 죄송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죄송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규,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광고 및 구독신청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구독료 : 20,000원/1년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구독료입금계좌

•하단광고 : 350,000원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하단1/2광고 : 200,000원 계좌번호 : 신탁 131-009-471898

목련길16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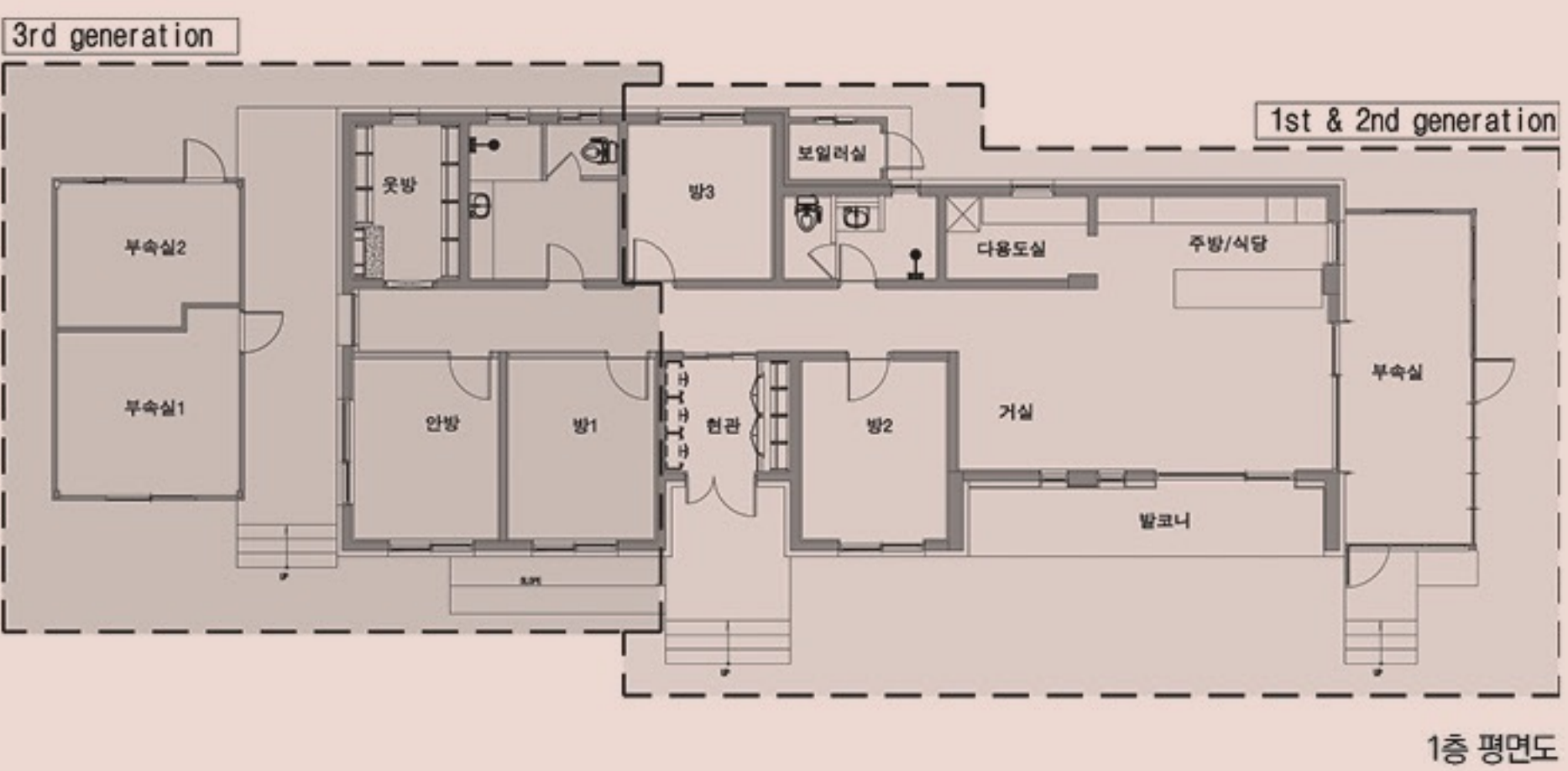
김문호 건축사 / 이록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42, 1506호
Tel. 063-452-2666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목련길 16 / 대지면적 : 1,102.00㎡ / 건축면적 : 214.87㎡ / 연면적 : 203.42㎡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점토벽돌마감, 시스템창호, 금속지붕재

“ 본 주택은 길이 27m로 넓게 펼쳐진 전면이 환상적인 전원주택이며, 넓은 박공지붕으로 단순한 절제미를 더해주며, 전통적인 벽돌조적으로 마감하였다.

주택 내부는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중복도로 배치한 방들은 3대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였으며 넓은 식당은 휴식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넓은 발코니와 천공이 접해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

건축문화 「사랑」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외 회원 일동

건축문화

사랑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작 '화성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대한건축사협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총 46개 작품 수상작 선정

11월 18~23일 도청 로비서 수상작 전시 예정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에서 공공·일반·학생 부문 총 4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은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우수 건축물에 수여되는 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상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93건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건축학계 교수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공공 부문 대상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가 차지했다.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이 건물은 학문과 문화가 교류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국제행사와 학술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곡선형 지붕과 투명한 입면은 '열린 캠퍼스'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자연광 유입과 대공간 구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일반 부문 대상에는 '호움(ho:om)'이 선정됐다. 일상 건축사사무소 최정인 건축사가 설계한 이 작품은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연결해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한옥의 마당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적 특성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학생 부문 대상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인호 학생의 'DATA MATRIX'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디지털 데이터와 건축의 관계를 탐구하며 도시 속 정보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실험적 설계로, 정보사회에서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청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준영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는 "올해는 지역성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전북 건축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이번 건축문화상이 지역 건축인들의 열정으로 도내 건축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수상작들은 전북의 건축 수준과 미적 감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를 통해 전북 건축문화만의 가치와 깊이를 다시금 되새기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에 대해서는 본지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오는 11월 18일(화)부터 개막

건축문화상 시상 및 세미나·건축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오는 11월 18일(화)부터 11월 23일(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특별전시장에서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건축문화제는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인들의 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비롯해 한·중·일 국제건축작품, 타 시도 건축문화상 수상작(광주, 경기, 제주 등)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미나, 건축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1월 18일(화)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연장에서 열리며, 시상식과 함께 본격적인 문화제의 막이 오른다. 이어 11월 20일(목) 오후 1시, 전북대학교 공학1관 106호에서 건축 세미나가 진행되며, 오후 4시에는 '건축학교육, 업계와 함께 걷는 커리큘럼'을 주제로 한 건축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전북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가 지역 건축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미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 및 세미나 참석 건축사에게는 건축사 의무교육(자기개발) 1시간 인정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조하면 된다.

전주시 아중호수도서관, '2025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 '2025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 동시 수상 쾌거

도시재생 및 친환경 건축모범사례로 기여한 점 높이 평가 받아...



(사진 = 아중호수도서관 실내)

전주시는 아중호수도서관이 '2025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과 '2025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축 관련 최고권위의 공모전으로,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상이며, 아중호수도서관은 올해 공모전에서 도시의 낙후 공간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목조건축 공모전에서 아중호수도서관은 길이 101m에 달하는 선형 형태의 목구조를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건축미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사고다발지역이었던 아중호수 인근의 폐도로를 정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특화 복합문화공간인 아중호수도서관을 조성했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과거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아중호수 내에 시민의 문화 쉼터로 도서관이 조성되고, 이 도서관이 두 개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목조건축 공모전에서 아중호수도서관은 길이 101m에 달하는 선형 형태의 목구조를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건축미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사고다발지역이었던 아중호수 인근의 폐도로를 정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특화 복합문화공간인 아중호수도서관을 조성했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과거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아중호수 내에 시민의 문화 쉼터로 도서관이 조성되고, 이 도서관이 두 개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2025 건축올림피아드' 성료

중·고등학생 대상들이 건축적 상상력을 펼쳐...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2025 건축올림피아드'가 지난 11월 1일(토) 전주비전대학교 창조관 1층 스타라운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별 추천을 받은 학생 70여명이 참가해 창의력과 건축적 감각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통해 평가받았다.

'건축올림피아드'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열리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건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건축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가 주관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5. 11. 7. 기준)

• 변경(소재지)

- 박다감 건축사 / 구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14, 1층
- 서민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6-2, 2층
- 정영철 건축사 /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2013호
- 송주창 건축사 / 하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3, 312호
- 양시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연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18, 3층

• 변경(사무소명 및 소재지)

- 이두필 건축사 / (주)디에스 건축사사무소 → (주)디엔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 10, 2층 201호

• 결혼

-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0월 25일(토)
- 유성환 건축사 / 예순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11월 01일(토)
- 문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 아들 결혼 - 2025년 11월 02일(일)
- 이영민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11월 08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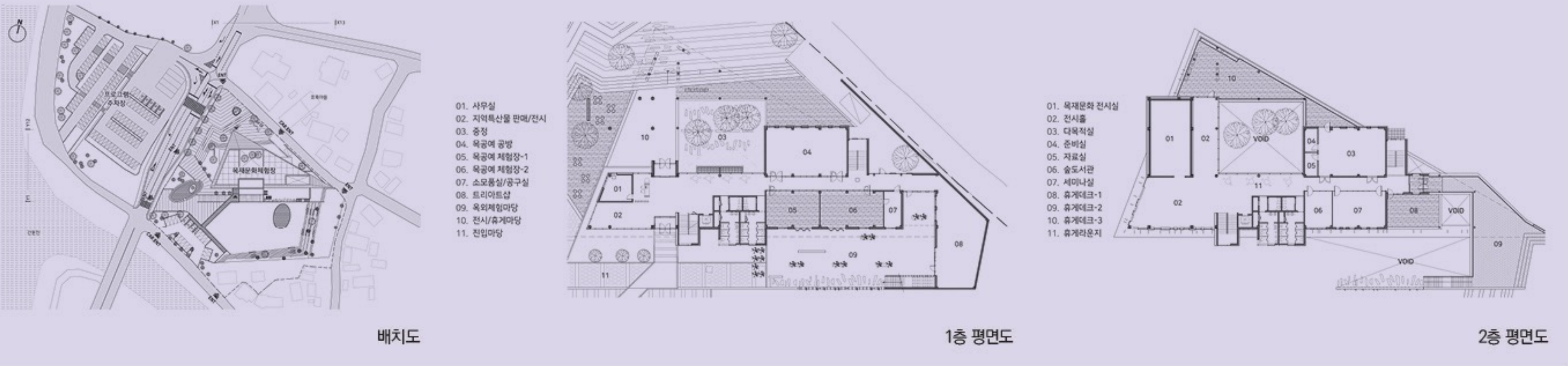
• 부고

- 김명국 건축사 / 루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11월 04일(화)



전라남도 구례와 순천을 잇는 865호선 지방도에 접한 대지는 남동쪽으로 선창골이 흐르고, 북쪽과 동쪽에는 완만한 경사지 위로 마을이 자리한 장소이다. 도로와 하천, 경사지가 맞물리는 경계에서 우리는 건축물이 주변 자연과 마을의 관계 속에서 ‘비움’을 통해 자연을 품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전통건축의 누하진입과 누마루의 개념을 차용하여 건축과 자연 사이에 여유를 두었고,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당과 데크 공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며 체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기존 학교의 향과 운동장, 진입축 등 장소에 대한 기억을 존중하고, 주변의 자연 및 마을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우리는 대상 건축물이 나무의 따뜻한 질감 속에 사람, 자연, 시간의 흔적이 어우러지는 ‘열린 목재문화의 장’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Green Architecture

(주) 지에이환경기술원
최상의 분석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을 One Stop 서비스 하는 전문기업

목적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기술 및 녹색건축 문화 보급

주요업무
▶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 제로에너지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컨설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G-SEED Consulting)
녹색건축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
(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Building Energy Efficiency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 주체 및 건물 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컨설팅
(Zero Energy Building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

ONE STOP SERVICE

Tel 062)373-3131 E-mail gaarch0801@naver.com
Fax 062)373-3132 H.P 010-3086-8789 대표 이정훈

광주건축사회, '2025 건설안전·품질 세르파' 교육 실시

건설현장 점검 절차 및 사례 분석을 공유해 역량을 강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 본부는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의 주요 관리자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점검 관련 '건설안전·품질 세르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 점검 절차 및 중점관리 사항, 건설안전사고 현황과 사례 분석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토안전관리원 김병철 호남지역본부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의 개회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설안전 점검실시 및 동향 소개 ▲건설현장 품질관리 사례분석 ▲SMART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시연 ▲가상(VR) 안전체험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최신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과 VR 체험교육을 통해 실무적 이해도를 높였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가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북구청 갤러리서 '제27회 미술전' 성료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회장 정인순)은 지난 11월 10일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제27회 미술전'을 개막식 개최 후 21일까지 약 30여 작품을 전시했다.

개막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미술동호회 회원, 북구청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건축사들이 전문 분야인 건축을 넘어 예술적 감각과 통찰을 유화, 수채화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북구청 관계자는 축하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훌륭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동호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도 "미술동호회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8회 도시주택포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려

강필서 회장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 전환 시급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 강조



광주·전남지역 주택의 공급과 지역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8회 도시주택포럼이 지난달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남도일보가 주관했

으며 도시주택·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항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주택시장 현황과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장, 박금화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길종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강필서 광주건축사회장 등이 참여해 110만호 공적주

택 공급 정책의 민관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광주는 이미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했으며,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의 주택소유 가구 비율은 58.3%로 자가보유율이 낮고, 향후 공급대기 물량이 4만2천세대에 달한다"며 "고금리와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기후·문화·생활양식을 고려한 '광주형 공공주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용적률 완화, 주차장 및 일조권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건축사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설계·시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품질 향상과 친환경·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는 필수이며,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 광주 아시아 건축국제대전' 성료

민주+건축, 영산강을 잇는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2025 광주 아시아 건축국제대전-민주+건축'이 지난달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B3층 복합 6관 대나무전시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가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 연합회와 광주건축가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막식과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대전은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광주·전남의 도시와 건축 현안을 다루는 기획전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건축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도시와 건축 현안을 다룬 기획전 '리버 & 시티-영산강 Y 프로젝트'는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향한 젊은 시선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삼아, 입체적 공간계획과 시민참여형 도시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또한 공연예술·전시·교육 등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수변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김기준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은 "이번 국제공모전을 통해 아시아 각 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건축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건축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0명 (2025. 11. 7. 기준)

•퇴회

- 김선채 건축사 / (주)뉴텍 건축사사무소
- 김후진 건축사 / (주)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변경(소재지)

- 최준호 건축사 / 향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A동 1309호

•부고

- 양동윤 건축사 / 에이디 건축사사무소 윤 / 빙부상 - 2025년 10월 24일(금)
- 김효중 건축사 / (주)지디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10월 24일(금)
- 김보현 건축사 /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 본인상 - 2025년 10월 31일(금)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복빌딩

김성수 건축사 / 한양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5, 골드타워 10층
Tel. 061-683-4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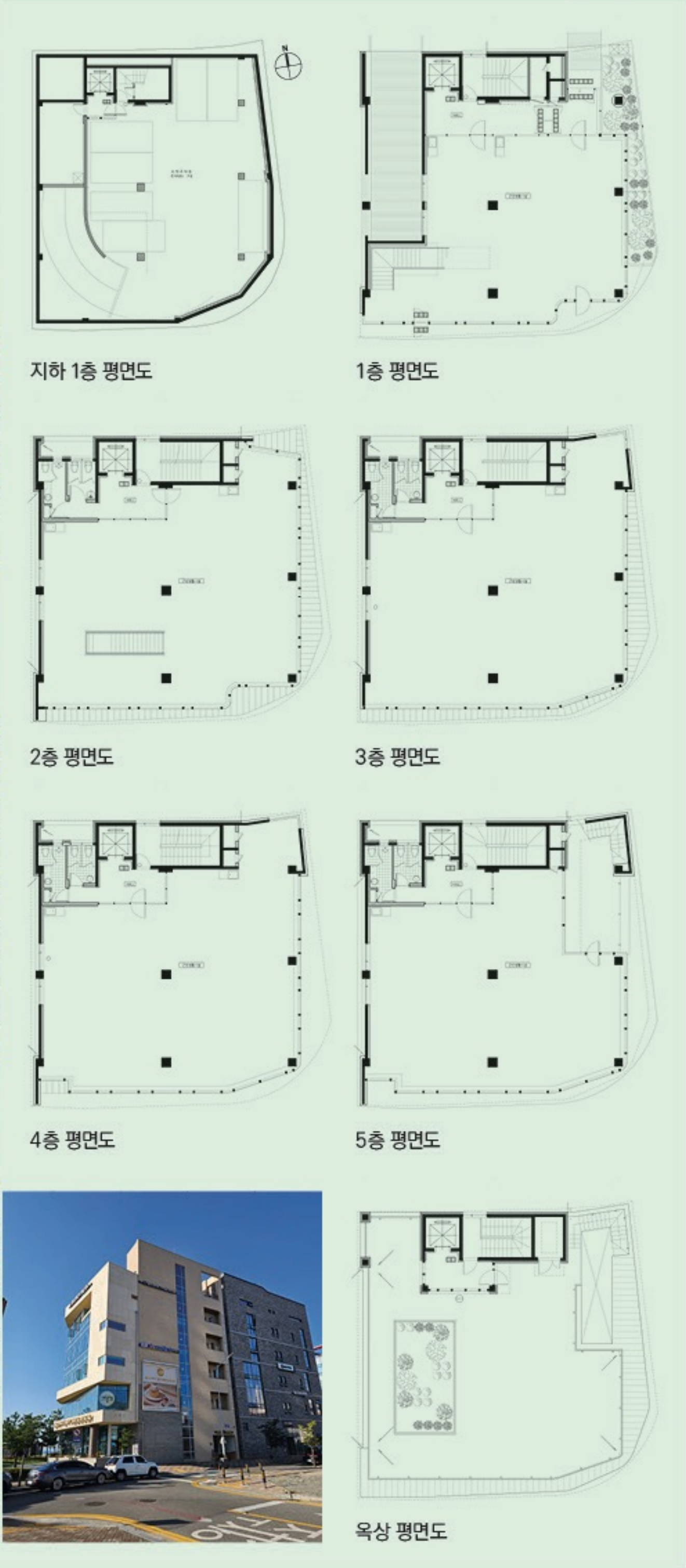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84-9번지 / 대지면적 : 444.30㎡ / 건축면적 : 295.05㎡ / 연면적 : 1,743.68㎡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라임스톤, 벽돌, 커튼월



앞으로 넓게 펼쳐진 윤슬이 매력적인 본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과 건물이 어우러지도록 하고 싶었다. 커튼월 유리를 곡면으로 계획하여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결을 나타내고 라임스톤을 사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본 건물에 와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막힌 곳 없이 산책로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개방적인 전망을 고려하였다.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5개소 선정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나주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등...



(사진 =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2022년부터 총 20개소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했으며, 수상 건축물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대상작을 지난해부터 도민이 많이 찾거나 접하는 공공건축물로 확대했고, 올해는 공공 부문에서 첫 대상작이 선정됐다.

공공 부문 대상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해남126 오시아노호텔(건축주 한국관광공사)이 선정됐다. 전 객실 오션뷰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머무는 순간마다 바다의 품에 안긴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민간 부문 최우수상에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나주의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RC기숙사&식당(건축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 선정됐다. 해당 건축물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해 개방적인 공간감을 형성했다. 또한 에너지공과대학 위상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우수상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광양), 민간 부문 우수상에 봉불사 명상센터(무안)와 담빛리주택(담양)이 선정됐다.

전남도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우수건축물 선정을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건축물이 시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 2025년 건축·토목 설계사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가져...



(사진 = 광양시청 제공)

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시는 간담회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를 공유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설계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상희 허가과장은 “건축·토목 설계사와 담당 공무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지역 건축사 및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체계 구축 등 논의...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와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체계 구축과 민간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되

전라남도는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등 공공 부문 2개소와 민간 부문 3개소를 선정했다.

전라남도 우수건축물은 준공된 건축물 중 지역 건축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 건축물에 수여하는 상이다.



(사진 = 화순군청 제공)

었다. 군은 이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한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등 건축사의 안내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와 설계도서 반영 필요성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독려하는 등 제도 준수를 당부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협의기관 간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허가 처리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화순군은 앞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박민중 인허가과장은 “전문가들과 소통을 지속해 인허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신규 회원 환영 및 협회 비전 공유의 장 마련...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달 21일(화) 도협회 회의실에서 신규회원과 이경일 회장이 함께하는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건축사회 활동에 원활히 적응하고, 협회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신규 회원들이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경일 회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 그리고 협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열정에서 비롯된다”며 “신규 회원들이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남 건축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의 주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안내하며, 회원 간 소통 강화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2명 (2025. 11. 7. 기준)

•입회

- 김귀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솜건축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99-7

•부고

- 이선경 건축사 / 선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10월 13일

- 공채현 건축사 / 현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시모상 - 2025년 10월 2일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속도의 도시에서 문화의 도시로, 영암을 다시달리게 하다

—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학생우수작품전’
광주시장상을 수상한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정여진 학생



정여진 학생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영암 F1 국제자동차경기장을 활용해 연중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텔, 컨벤션, 페스티벌 복합 프로그램 계획 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축업계 분위기 조성하고 새로운 영감을 갖기를 기대해본다.

Q. 수상하신 ‘RPM’ 작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RPM’은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의 역동성과 도시 속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그리고 도시가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지는 문화 플랫폼을 지향했습니다. 설계의 주안점은 ‘회전’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멈춰 있던 문화적 흐름이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공간적 리듬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Q. 작품명 ‘RPM’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이름이 작품의 어떤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실까요?

‘RPM’은 ‘Rejuvenation, Potential, Momentum’의 약자로, ‘도시의 재생’, ‘잠재력의 발현’, ‘지속적인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모터스포츠라는 틀 안에 갇힌 시설을 넘어, 정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적 에너지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Rejuvenation’은 노후화된 공간의 갱신을, ‘Potential’은 지역이 지닌 문화적 가능성을, ‘Momentum’은 이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동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RPM’이라는 이름을 도시의 재생이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건축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반대로 과정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F1 경기장이라는 특수한 사이트의 성격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경기장 내부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터스포츠’라는 한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경기장이 지역의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재해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반대로 흥미로웠던 점은 세계 각지의 F1 경기장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경주만이 이루어질 때보다, 다양한 복합 프로그램들이 결합 될 때 경기장의 시너지와 문화적 교류가 훨씬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기장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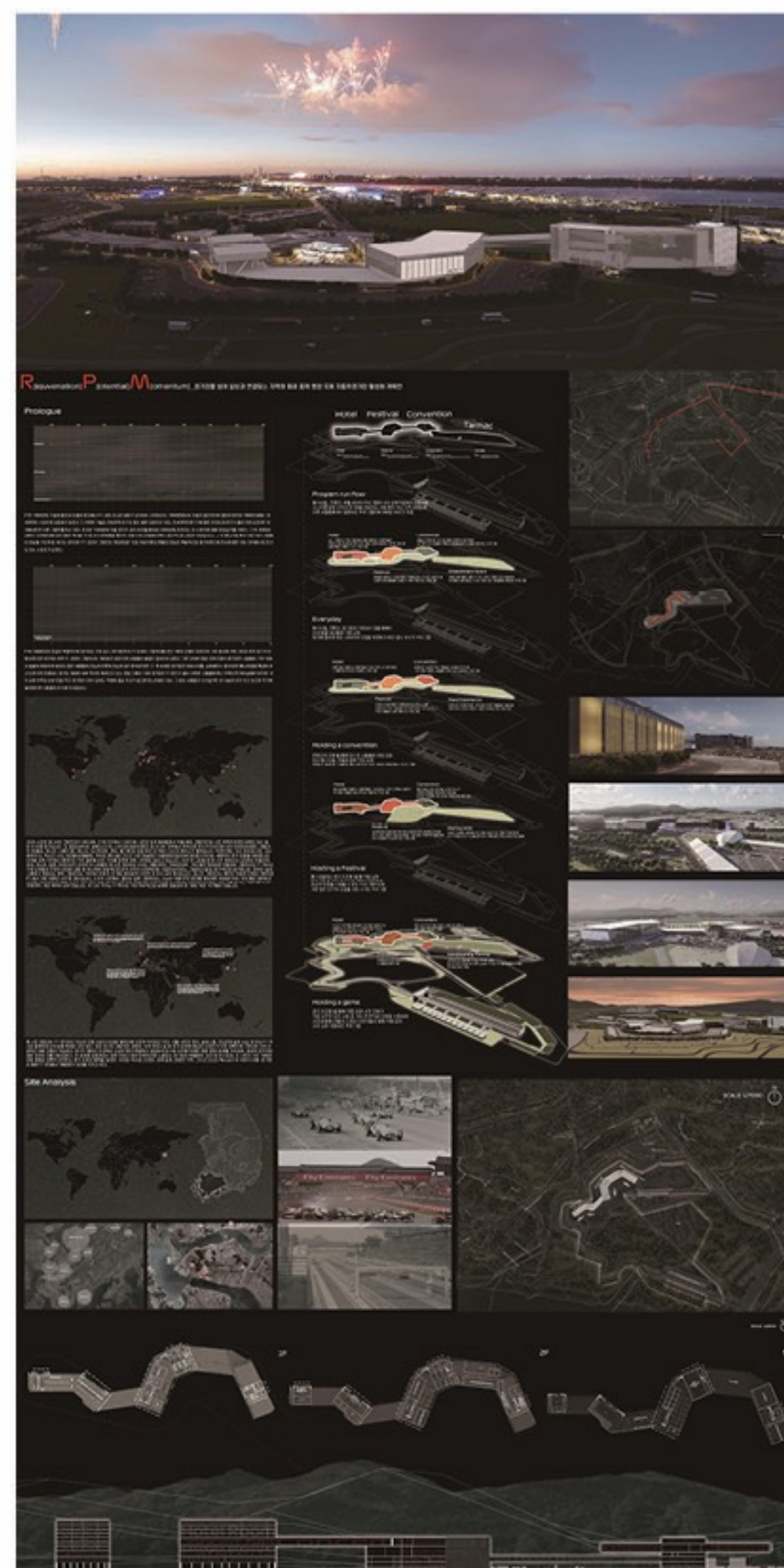
적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광주시장상을 수상하신 소감과 작품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수상은 제 개인만의 성과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 교수님들과 동료들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과정 내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밤을 새우며 서로의 작품을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건축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졸업 후 혹은 앞으로 건축 분야에서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짓는 일을 넘어, 사람들의 경험과 도시의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의 빠른 발전 속에서 생겨나는 유휴부지나 낙후된 지역들을 재생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RPM’ 프로젝트처럼, 건축을 통해 지역이 다시 회복되고 활력을 얻으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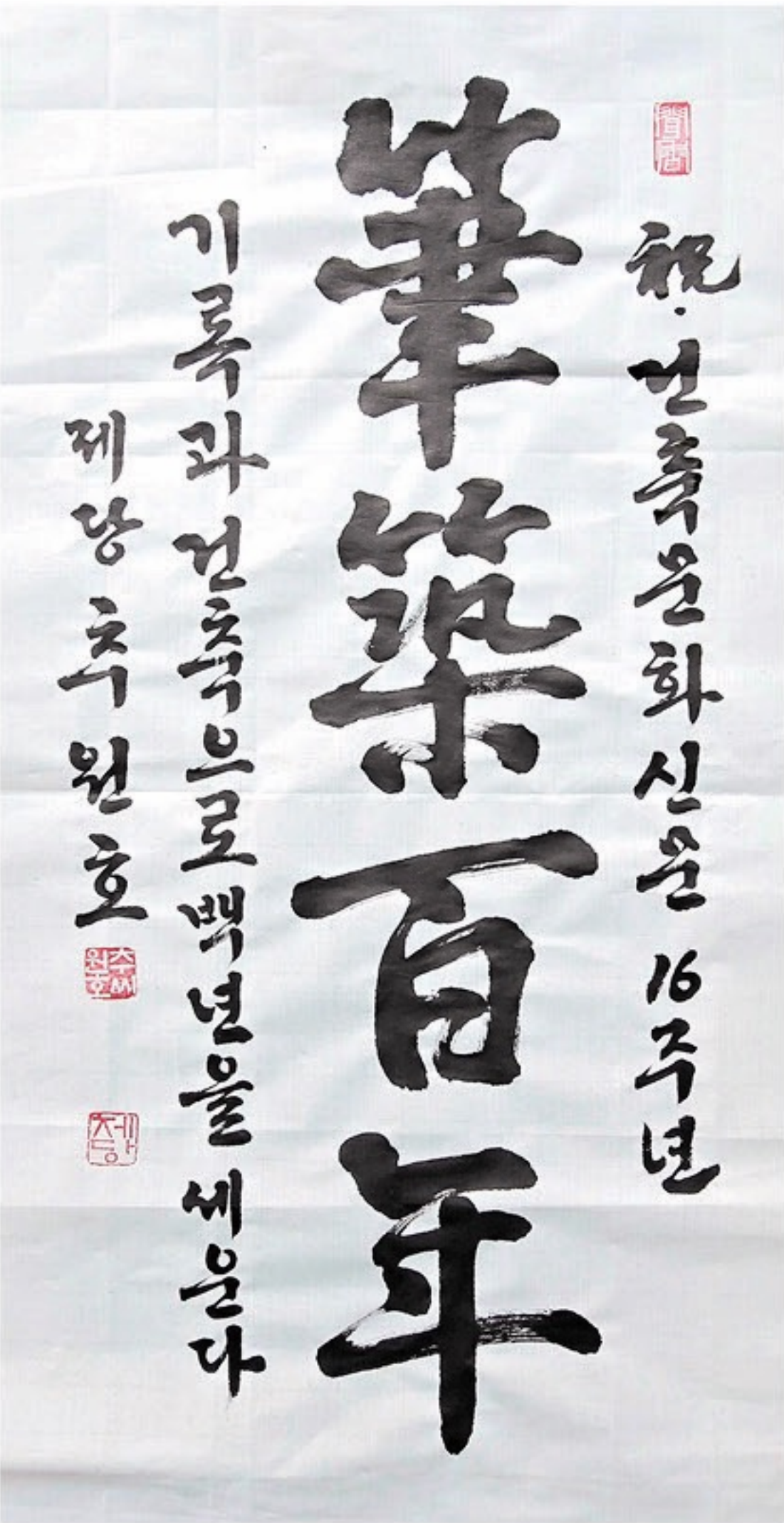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창간 16주년 기념 회호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공간을 감각하는 재료들

노형준, Y.A.R.D / 바이블랭크 / 2025. 06. 04.

책의 표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이미 이끌렸다. 「공간을 감각하는 재료들」이라는 제목은 건축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가 어떻게 감각으로 변하는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표지의 질감, 색감, 그리고 “감각”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운은, 마치 책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공간 속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파트 ‘재료를 짓고, 구법으로 다듬다’에서는 재료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를 다룬다. 목재, 돌, 유리, 금속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건축 재료들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감각적 매개체로 바라보며, 재료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끌어내는지 설명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목재, 석재&벽돌, 메탈, 콘크리트, 유리, 플라스틱 등 여섯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수록된 사례들은 실제 지어진 건축물의 사례는 아니지만, 공간의 분위기와 재료의 느낌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 자료가 담겨있다. 이미지와 도면을 통해 재료의 질감과 구축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모형사진, 렌더링, 상세 도면 등 다



양한 시각적 자료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건축가의 일을 요리사에 비유한다. 요리사가 식재료를 다루어 궁극적으로 ‘맛의 경험’을 제공하듯, 건축가 역시 다양한 자재를 다루어 ‘공간의 경험’을 제안한다고 말한다. 이 비유는 인상적이었다. 재료는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 직접 닿는 도구다. 건축가는 그것을 통해 ‘맛있는 공간’을 만드는 셰프인 셈이다. 이 관점은 건축을 기술의 영역에서 감각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나 또한 재료를 다시 보는 시선을 배우게 되었다.

각 재료의 기원과 물성에서 출발해, 그것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세밀하게 다룬다. 철은 냉정하고 단단하지만, 녹이 스는 순간 오히려 따뜻한 인간미를 품는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그 투명함이 만들어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돌은 가장 오래된 재료이지만, 그 표면에는 시간의 흔적이 쌓여 새로운 생명력을 낳는다. 저자는 이러한 재료의 감각적 층위를 통해,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간과 감각의 총합’임을 보여준다.

「공간을 감각하는 재료들」은 나에게 건축을 ‘보는 일’에서 ‘느끼는 일’로 확장시켜 준 책이었다. 재료는 단지 물성을 지닌 대상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을 잇는 감각의 언어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다. 책장을 덮고 난 지금, 나는 설계 작업에서 재료를 더 깊이 ‘느끼며’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만의 건축에서도, 사람들이 그 공간을 손끝과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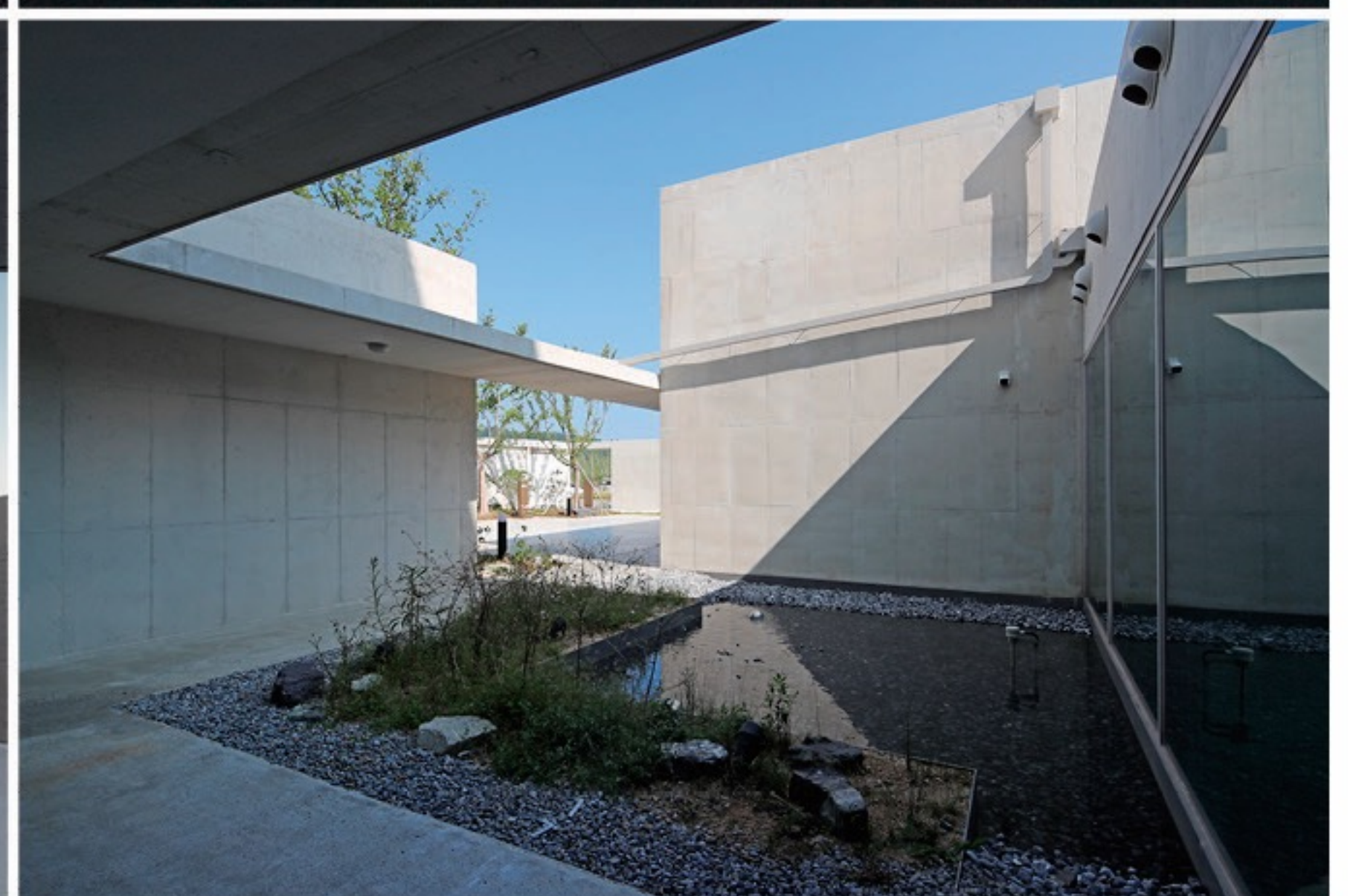
정명환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지웃 광주 서구 마북로 67, 3층 T. 062-375-2800 F. 062-375-7100	박상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공감건축 광주 광산구 산월로 41, 2층 T. 062-456-5739 F. 062-456-5740	장동원 건축사 동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중가로 33-2, 301호 T. 062-224-0060 F. 062-224-0061	박주현 건축사 바움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 33, B101 T. 062-654-3376 F. 062-264-3376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광주 서구 운천로103번길 4, 3층 T. 062-267-2267 F. 062-267-2268	박진호 건축사 (유)와이피그룹이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3, 3층 T. 062-385-1401 F. 062-385-1412	심상철 건축사 이소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유림로100, 3층 T. 062-511-9408 F. 062-511-9409	정필수 건축사 (주)반석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93번길 30-3 T. 062-226-1660 F. 062-226-1665
임경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이우 광주 남구 천변좌로370번길 8-1, 지하층 T. 062-675-3335 F. 062-675-3334	김민호 건축사 너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1로 7, 502호 T. 062-654-0370 F. 062-651-0370	왕성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다예 광주 서구 동천로10번길 35-4, 2층 T. 062-434-4634 F. 062-528-4634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남구 백양로 163, 2층 T. 062-676-2267 F. 062-653-2267
이영문 건축사 이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210호 T. 062-515-0432 F. 062-515-0436	정상채 건축사 초석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 062-527-8043 F. 062-527-8044	진수성 건축사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신창로 105, 5층 T. 062-672-2230 F. 062-672-2232	최진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현산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5호 T. 062-603-0178 F. 062-603-0179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 ◎ **시상목적** : 전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
- ◎ **신청자격** : 건축주(발주기관) 또는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인허가권자
- ◎ **응모대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공 :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건축물(공모일 기준 준공 5년 미만) / 민간 : 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건립시기 제한없음)]

2025년 대상(공공 부문)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설계자 : (주)아파트체 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적재
시공자 : 인동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576-33/ 대지면적 : 39,166.8㎡ / 건축면적 : 2,643.63㎡ / 연면적 : 9,503.1㎡ / 건폐율 : 6.75% / 용적률 : 19.5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주용도 : 숙박시설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 ◎ **시상목적** : 전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
- ◎ **신청자격** : 건축주(발주기관) 또는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인허가권자
- ◎ **응모대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공 :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건축물(공모일 기준 준공 5년 미만) / 민간 : 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건립시기 제한없음)]

2025년 우수상(공공 부문) ‘한국창의예술중학교’

설계자 : (주)에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상지건설(주)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중마로 400 / 대지면적 : 35,649㎡ / 건축면적 : 1,053.55㎡ / 연면적 : 2,981.24㎡
건폐율 : 2.96% / 용적률 : 8.3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2025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RC기숙사 & 식당’

설계자 :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대지위치 : 전남 나주시 켄텍길 21 / 대지면적 : 384,083㎡ / 건축면적 : 6,151.88㎡ / 연면적 : 24,578.52㎡
건폐율 : 11.92% / 용적률 : 32.71% / 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 ◎ **시상목적** : 전남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
- ◎ **신청자격** : 건축주(발주기관) 또는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인허가권자
- ◎ **응모대상** :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공 :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건축물(공모일 기준 준공 5년 미만) / 민간 : 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건립시기 제한없음)]

2025년 우수상(민간 부문) '봉불사 명상센터'

설계자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두물문화재



대지위치 : 전남 무안군 청계명 사마리 499-7 외 1 / 대지면적 : 3,496㎡ / 건축면적 : 173.89㎡
연면적 : 162.56㎡ / 건폐율 : 4.97% / 용적률 : 4.65%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5년 우수상(민간 부문) '담빛리주택'

설계자 : 전남대학교 김경식
시공자 : 플랜트리



대지위치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담빛리 365 / 대지면적 : 575.9㎡ / 건축면적 : 121.5㎡
연면적 : 157.36㎡ / 건폐율 : 21% / 용적률 : 27%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박성준 외 회원일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미숙 외 회원일동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최원식 외 회원일동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영철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필서 외 회원일동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한묵 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김경섭 외 회원일동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장 현상훈 외 회원일동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양정식 외 회원일동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정병거 외 회원일동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김종도 외 회원일동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한민규 외 회원일동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열 외 회원일동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이정일 외 회원일동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송동훈 외 회원일동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정일현 외 회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현균출 외 회원일동